

신행 365일
이제 실천이다

9월 불서 읽기의 달

- 매일 시간정해 책을
- 경전부터 읽자.
- 선물은 불서로
- 절마다 도서관 만들자

선물은 불서로

9월 불교책 전문매장 여시아에서 만난 홍미리(50)씨는 이번 추석에 혼자사는 친구들을 위해 책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딸인 식구들이 없어 명절 때 차례만 지내면 비교적 시간이 많이 남는 독신 친구들에게 불서는 좀 특별하고(?) 안성맞춤인 선물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홍씨는 "명절 연휴로 자칫 마음이 들뜨거나 흥청망청 보내기 쉬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독서"라며 "친구들에게 선물도 하고 직접 읽기 위해 불서를 몇 권

으로 대신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불자들에게 불서 선물은 불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높일 수 있어 권장할 만한 사항이다.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신생활은 물론 전법 또한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서를 권하고 보시하는 것 또한 법문을 통해 포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포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일선 포교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불서 읽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불자들만큼이라도 부모형

신행 캘린더

9월 18일(수)

■이천 '도자기 축제' = 한국 최대의 도자기 축제인 '이천 도자기 축제'. 백자, 청자, 청화백자 등 다양한 한국 전통자기를 만나는 자리가 29일까지 경기도 이천 설봉공원 일대에서 계속된다.

· 직접 석고물에 앉아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우는 코너를 비롯, 이은구, 김세웅, 임남일 씨 등 도자기 명인들의 작품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마당이 마련된다. (031)635-7376

■경주 장애인복지관 '문화공연' = 동국대 등 경주지역 대학 동아리 회원들과 포항 벽계국악원생들은 오전 11시 30분 복지관 강당

에서 태권도 시범, 풍물, 국악 등을 공연하는 한가위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장기자랑, 퀴즈대회, 송년 빛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속될 예정이다. (054)776-7522

9월 22일(일)

■두레생태기행 '한가위 특별답사' = 두레생태기행은 추석에도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실향민들과 함께 떠나는 한가위 특별 휴전선 답사를 마련했다.

임진강, 태풍전망대, 신탄리 다리 등 한국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를 최근 개통된 통일열차로 돌아본다.

출발은 오전 8시 서초구청 정문 앞. 참가비는 3만 5천원(02)712-5812

9월 23일(월)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가을철 산사의 별식' = 국화전, 국화송편, 산마지집, 들깨집...

전통사찰음식연구소가 가을을 맞아 산사의 스님들이 먹던 별식들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통사찰 음식문화를 직접 배워보고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건강 음식 조리법을 익히는 기회. 강의는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연구소 강당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25만원(재료비, 교재 포함). (02)355-5961

9월 24일(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명상교실' = 바쁜 현대사회에서 나를 돌아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자.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명상교실을 12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한다.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이번 명상교실은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상임이사의 지도로 진행된다. (02)969-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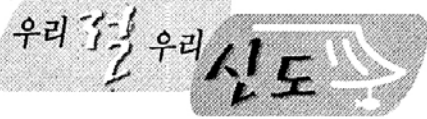
■통도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 부산 아시안 게임 개막을 맞아 통도사가 아시아인들에게 선보이는 불교문화의 정수.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양산의 역사와 문화' 주제의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부처님이 직접 입었다는 석가여래천화가사를 비롯한 불교문화재 등 양산의 대표적 고분인 금강총출토문화재 등 3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055)382-1001

1001 ■용진신행회 '성지순례' = 설악산 백담사, 봉정암, 오세암, 영사암 참배. 용진신행회는 관해 한용운 스님이 '님의 침묵'과 '불교유신론'을 탈고한 백담사, 봉정암 등 불교성지를 찾아가 철야기도 및 참배를 올린다. 출발은 오전 6시 30분 을지로 5가. 참가비는 1박2일 동안 4만 5천원. (02)2279-1191

9월 25일(수)

■서울 법장사 '아함경 강좌' = 법장사는 중앙승가대 교육원 교수인 퇴계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마다 초기불교 경전인 아함경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가비는 4만원(교재비 포함). (02)971-0303

임종앞둔 노인들 보살피기 30년



대구 관암사 지장회 김용순 총무



◇김용순 보살(맨 오른쪽)이 지장회 회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가야하는데, 그 길을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보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구 팔공산 관암사 지장회 총무 김용순 보살(대자행 62)은 나이에 노보살들을 내 몸처럼 아끼며 보살피고, 심지어는 임종까지 지켜주는 자비행을 펼쳐오고 있다. 30년째 이런 활동을 해왔으니, 관암사에서 김 보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관암사의 대표적 신행조직인 지장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72년. 당시 태고종 13대 종장이었던 관암사 창건주 백암스님이 "신도들이 모여 일심으로 기도하면 성취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따라 김 보살을 비롯한 22명의 신도가 노보살들을 보살피자고 뜻을 모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보살들에게 생활방편을 세워주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은 노보살들이라 하더라도 사찰을 오가거나 성지순례를 다니는 등의 신행활동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돼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종을 앞둔 노보살들의 곁을 지키며 말벗이 돼주고, 극락왕생을 발원해주기도 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뜻을 모았던 지장회 회원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22명이었던 회원이 13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회원들의 활동은 오히려 활발해졌다. 지장회 회원들은, 총무보살의 지극한 정성이 있었기에 지장회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지장회는, 회원수는 많지 않지만 관암사 모임 중에서 가장 신심깊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단체로 정평이 나 있다. 김 보살을 비롯한 지장회원들은 30년을 한결 같이 관암사 초하루 법회에 참석하

72년에 지장회 설립, 자원봉사 앞장

경전공부 열심...사찰일에도 헌신

고, 매월 음력 10일에는 김 보살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법회경 사경과 독경을 해오고 있다.

"내게 딱히 모든일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며 해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회원들과 같이 생활하다보니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보살피고, 세상을 떠날 때 편안하게 가시도록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에서 비롯된다며 마음을 편히 가지고 지성으로 기도하면 병은 자연히 낫게 된다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발심하여 '불자'가 됐다.

이후 김 보살은 기력이 없어 법당에 나오지 못하는 노보살들을 살피기 직접 집을 찾아가 그날 있었던 법문 내용을 알려주고, 말벗도 되어주는 등의 지장회 활동은 물론, 매월 초하

루마다 열리는 법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법당청소를 하고 공양간 일까지도 거드는 열성 신도가 됐다. 얼마 전에는 나이를 속이고(?) 해인사 수련대회도 다녀왔다.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김 보살은 "30년간 경전공부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희원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지장회 모임과 경전공부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든 믿음과 자기반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김 보살은 자식들에게도 종교가기를 권한다. 물론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한다면 더 좋겠지만 굳이 불교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엄마 왜 부처님 법을 따르게 했는지 이해하게 될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처님 아들이 되지 않

추천의 말

해공스님 관암사 주지



김용순 보살과 같은 사람은 다른 어느 사찰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 보살은 30년 동안이나 지장회 총무를 맡으면서 임종을 앞둔 노보살을 찾아가 위로를 해주고 경전도 읽어주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등 가족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찰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신도들은 나이에 노인들과 지내는 것을 꺼리는데, 김 보살은 오히려 노보살들을 극진히 모시기를 자청해 주변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또한 관암사 내에서도 매월 초하루 정기법회는 물론 행사준비, 신도회 상담에서부터 법당 청소, 공양간 허드렛일에 이르기까지 온갖 굵은 일도 마다않고 스스로의 정진에도 빈틈이 없는 보살입니다. 3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행실수의 자비심을 발휘하며 절에 다니고 있는 김 보살이야말로 이 시대의 참찰자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김 보살은 "절에 다니면서 여러 법명을 받았지만 백암스님이 내려주신 '대자행'이라는 법명에 애착이 간다"며 "제법명처럼 자비로써 남을 돕는 보살행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박원구 기자

특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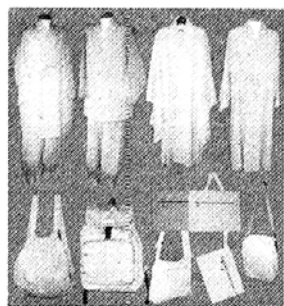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어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어청에 의장등록 (제 0246178호)

승복 · 범복 · 잠옷 · 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갈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계 가사봉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울사,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 (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나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9년 선도의 승복 선분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제재사 / 성광수씨 (주)수신토종오 대표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질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힘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6-4422